

① 제8회 치협 정기이사회 개최

치협은 지난 12월 12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행 치과 의사 국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술위원회에서 개선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보건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기택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의사국가시험이 오는 2002년부터 과목통합으로 개편되게 됐다"고 설명한 뒤 "예비시험제도 도입만으로 외국치대 졸업생에 대한 유입문제를 해결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사개선택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은 박영국 학술이사가 맡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신년교례회 개최일자 결정의 건,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자 결정의 건, 입학비·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상대가치 개정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① 기획위원회 장애인사업팀 평가회 개최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장애인사업팀 평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치과진료 구강보건 사이트에 '진료상담의'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구강보건사이트(www.dentalfriend.or.kr)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진료상담의를 구성하고 장애인 치과진료와 관련된 글을 홈페이지 상담실에 올렸을 경우 전문가로부터 쉽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또한 치협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장애인 구강건강 캠페인'을 위해 장애인 구강건강 등 관련 기사를 제공,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날 조영식 기획이사는 그간 장애인 사업을 위해 애써준 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장애인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재향단체, 장애인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① 치협 신년교례회 개최



치협 신년교례회가 지난 1월 5일 치협회관에서 치과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이기택 협회장은 "지난해 의약분업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의료보험제도의 상대가치 점수제 도입을 안착시킨데 대해 치과계의 긍지와 함께 큰 수확"이라고 역설했다. 이기택 회장은 전문치과의제와 관련, "협회의 융통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문치과의제가 복지부의 안대로 시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차기관의 표방금치를 대전제로 구체적인 방안 등에 있어서 복지부와의 견해차를 줄여나가 올바른 전문치과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 예비시험제 도입과 치과대학 정원 감축 등에 대해서도 협회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회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복지부나 보건료에게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대신 치과계 자체행사로 진행된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김정균 명예회장, 이재현 구강보건료연구원 원장, 임성삼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황규선의원, 주낙림 한국치정회 회장, 홍순용 APDC서울총회 조직위원장, 안박 대의원총회 부의장, 양정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오웅서서울지부 회장, 정종평 서울치대 학장, 손흥규 연세치대 학장, 조영근 조선치대 병원장, 신영순 서울지부 회장, 김성우 경기지부 회장, 김호철 충남지부 회장, 양재호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김경남 대한치과기재학회 회장, 박영철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일봉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이사장, 이선국 한국치과교정연구회 회장, 김숙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름은 무순)